

## 5. 말씀 앞에서 – ‘신앙을 고백하라’

9: 1-3, 7-9, 16-22

1. 그 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급식하며 굽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육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7.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9.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6.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흉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9.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흉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20.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밭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22.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흔의 땅 끝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 건강한 부흥이란. . .

느헤미야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종 구별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직무유기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우리는 기도하므로 우리의 의무를 계을리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사용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 첫째는, 실천하는 신양인의 모습입니다.

간혹 우리는 주변에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위한 신양인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 아니라,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둘째 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적들의 방해 속에서 낙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셋째 날 말씀에서는 잘못된 백성들의 삶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양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 둘째는 감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룬 신양인의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그는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 말씀 앞에선 신양인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민족을 비춰보면서 돌아온 과거를 보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의 차원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지적인 기준이란 무척 건조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이 원칙에 의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삶의 원칙이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원칙과 공의만 가지고 건강한 신앙의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할 일도, 고쳐야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감정이 피폐해 지는 경우들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저 스스로 요즘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젊은 목사시절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 같았는데, 나의 원칙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런 원칙을 적용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앞에서 나에게 한 치의 빈틈없이 서야한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존재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난 해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총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들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였던 이 총장님은 학교 행정을 목회하듯이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수백명의 교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힘들어하고, 늘 좋은 소리는 하지만 희생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명확한 ‘행정 지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감히 그 분에게 목회적으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총장님, 저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사랑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별로 고민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또 만들죠.

그러면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 정말 많은 규칙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학교가 바람직하고 정의로울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무너진 정의와 무너진 관계를 법으로 다스리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 힘들겠지만, 교수님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무례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양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기준에 갇힐 수 없습니다.

어떤 선을 긋고 누군가를 재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

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과 부흥의 역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자꾸 눈에 보인다면 과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군목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맡고 있었던 대전 통합병원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권사님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군대 생활을 작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루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군의관에게 잘 말을 해서 남을 기간을 자대에 가지 않고 평원에서 마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보다 정신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충분히 그런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모님을 인사를 하고 간 다음에 담당 의사를 만나서, 이 병사를 빨리 자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신에 저의 모습에 무척 흡족해 했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 사람의 호의를 공의 라는 이름으로 거절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병사에게는 편안함보다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드라이한 목사입니까?

저는 때때로 그 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잣대와 공의의 잣대만 있는 것 이 아니고, 뜨거운 가슴이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감격이 있기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8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이들이, 이제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금식하며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제 건강한 부흥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미봉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므로 시작되는 부흥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들의 신앙고백은 이 회개의 밑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며 초막절에 모여, 말씀을 들은 후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사람들이란 하나님이 금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구체적인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의 뜻이 “뉘우침과 고침”이 함께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아야합니다.

아주 철저한 회개의 사건, 고침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죄 뿐 아니라 열조의 허물까지도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자꾸 올라옵니다. 뿌리의 근원을 제거해야합니다. 이들의 회개는 철저하게 열조의 죄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원천적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의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그 환경을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근원을 제거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까?

그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 어떤 고백을. . .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7절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에서부터, 11절의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고백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7.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무리 보아도, 자신의 조상들의 과거와 현재자신들의 모습을 보아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1만 원짜리 한장을 들고 동네 모퉁이 구멍 가게에 분유를 사려 왔습니다. 분유 한 통을 계산대로 가져가니 주인은 1만 6천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 뒤로 가게 주인은 분유를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분유통을 들며시 떨어뜨립니다. 이제 아이 엄마를 불러 세우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이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입니다.”

그리고는 1만원을 받고 오히려 2천원을 거슬러 줍니다. 아이 엄마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았고, 가게 주인은 멋진 천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거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어떤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도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예배시간이나 성례에 얼마 정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도록 공동체가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으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와 긍휼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신들의 조상들,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즐거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하였고, 목을 곧게 하였으나 오직 주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엿장수 같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엿장수 아저씨는 돈보다 폐품 쓰레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헌옷이나 낡은 고무신, 빈병, 헌책, 찌그러진 양재기 등 쓸모없는 것들만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는 맛있는 엿가락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엿장수 아저씨는 신기하게만 느껴졌지요.

예수님도 엿장수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온갖 고물과 폐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망과 한숨, 고통, 눈물을 그 어떤 예물보다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으셔서 용서와 자유 기쁨과 행복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폐품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죄로 인하여 버렸던 민족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감격스러운 눈물, 뜨거운 가슴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고 돌아왔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고 왔습니다.”

9장 38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예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약속이 자손 대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약속 위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재현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재현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열방을 호령하고, 기름진 가나안 땅을 소유했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스러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스런 고백위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